



WOORI INVESTMENT & SECURITIES 투자정보부 2014. 6. 26

• **Market View**

— 어닝시즌을 앞둔 실적차별화에 적극 대응

• **Market Issue**

— 빛(Li-Fi)으로 구현되는 사물인터넷 시대

• **Large Cap 추천**

— 강원랜드, 한국전력, CJ제일제당, SK케미칼, 대림산업, 삼성SDI, LG, 현대위아
NAVER, 아이마켓코리아

• **Mid-Small Cap 추천**

— ISC, 디엔에프, CJ CGV, 미디어플렉스, 한글과컴퓨터, 동성화인텍, 영원무역

• **Large Cap Pool**

• **WM 주식포트폴리오**

— 공격형: 게임빌, 한글과컴퓨터, 일진전기, 삼성물산, 코오롱인더
— 중립형: 코웨이, 한세실업, NAVER, 한진칼, LG하우시스
— 안정형: CJ, CJ대한통운, 기업은행, 아이마켓코리아, 현대위아

• **Market Window**

— 주가상승률 상위종목, 외국인/기관 순매수 상위종목

• **Market Indicators**

• **Monthly Events Calendar**

Market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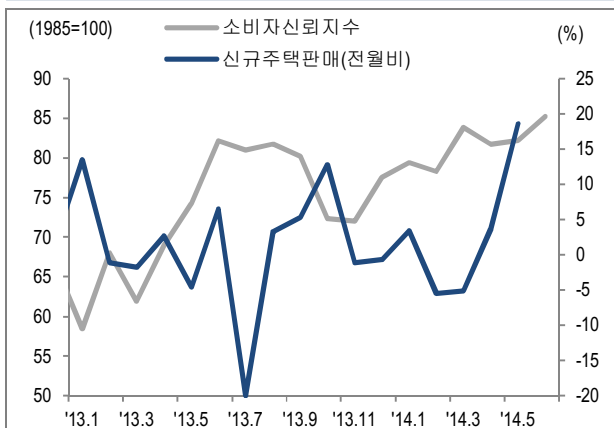
어닝시즌을 앞둔 실적차별화에 적극 대응

이라크 확전 우려에도 국내 증시 하행경직성 유지

2014. 6.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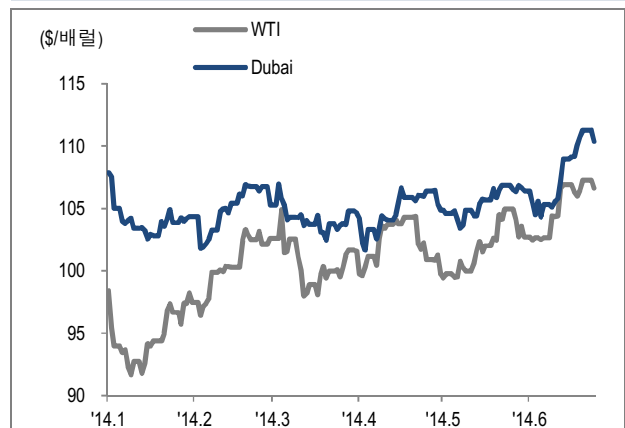
- 이라크 내전의 확대 우려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외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6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가 85.2를 기록해 예상치인 83.5를 상회하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5월 신규주택판매 역시 6년래 최고수준으로 올라서는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이라크발 우려에 하락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로 인해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동 정세와 맞물려 국제유가가 최근 단기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라크 사태 악화시 OPEC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증산 및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격한 상승흐름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VIX와 VKOSPI와 같은 증시 변동성 지표들이 바닥권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등 아직까지 이라크발 우려감은 국내 증시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및 신규주택 판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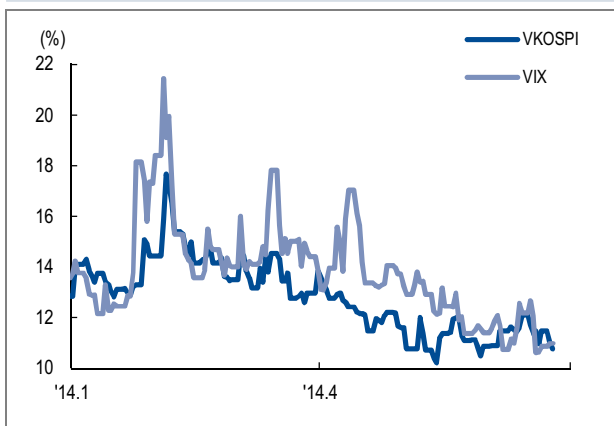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이라크 확전 우려에도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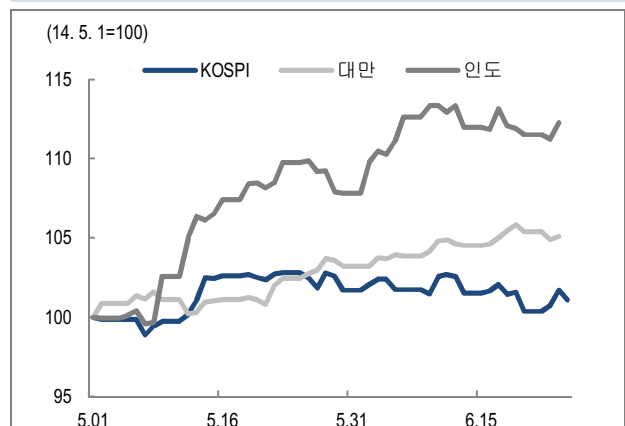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국내외 변동성 지표 큰 변화 없어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주요 아시아 증시 변동성 확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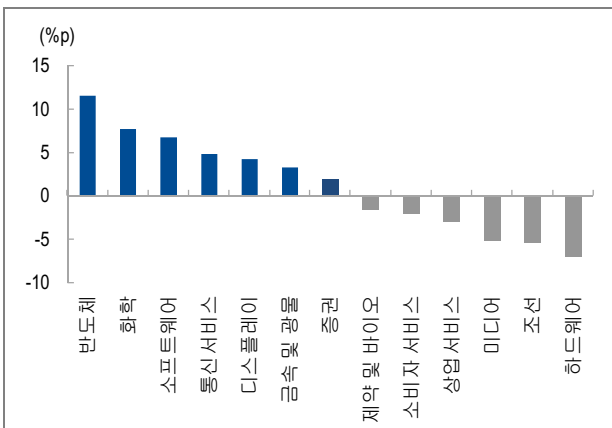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 이 과정에서 KOSPI가 다시 2,0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지만, 국내 증시 하방경직성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높다는 판단이다. 기술적 분석상 120일 이동평균선에서의 지지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PBR 1배 수준에 머물며 추가하락 압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저가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최근 중국 정부의 미니 경기부양책 실시와 6월 제조업 PMI의 확장국면 진입에 따른 중국 경기둔화 우려 완화 등을 감안하면 1,960~1,97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도 견고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2/4분기 실적 차별화에 대한 대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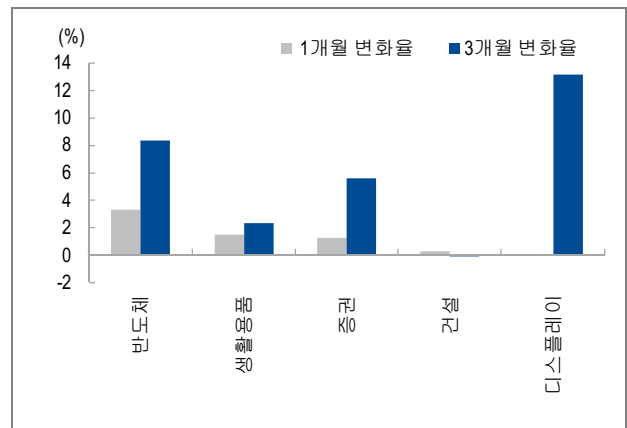
- 다만, 본격적인 2/4분기 어닝시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이익모멘텀 약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종목별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실제 2/4분기 국내 이익모멘텀 약화 과정에서 업종 및 종목별 수익률 차별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6월 들어 업종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반도체, 화학, 소프트웨어, 통신, 디스플레이, 금속광물, 증권 등의 업종이 KOSPI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2/4분기 이익모멘텀이 강화되는 업종으로는 반도체, 생활용품, 증권, 건설 등임을 감안할 때 프리 어닝시즌을 맞아 이미 이익모멘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 하드웨어, 미디어, 조선과 같이 실적 약화 우려가 여전한 종목군의 수익률은 크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업종별 차별화 흐름 속에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수익률 차별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만큼 종목선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국면이라 하겠다.

6월 KOSPI 대비 상승/하락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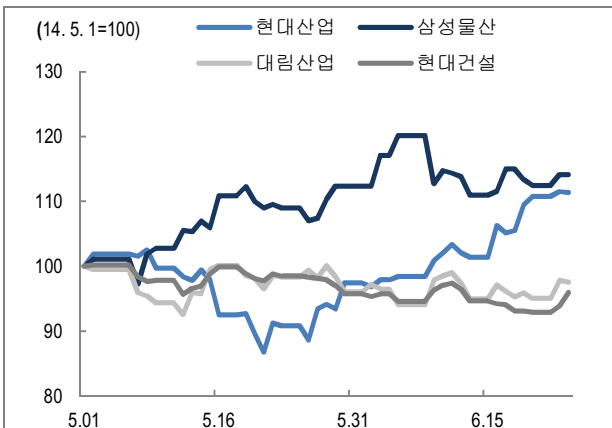
주 : 기간 6.1~ 현재
자료: FnDataGuide,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업종별 이익모멘텀 강화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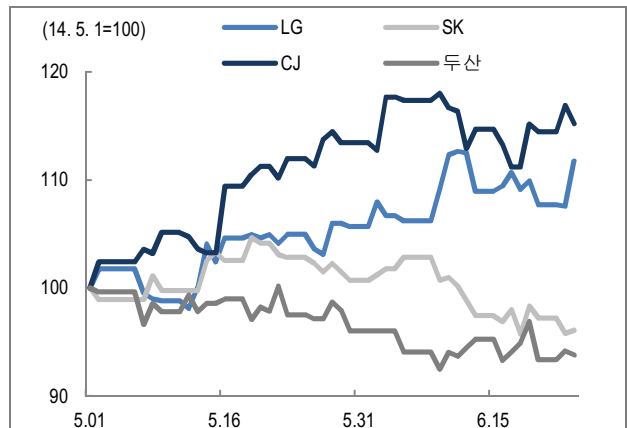
주 : 2014년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율
자료: FnDataGuide,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건설업종 내 수익률 차별화



자료: FnDataGuide,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지주사의 수익률 차별화



자료: FnDataGuide,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실적 개선주 - 반도체, 디스플레이, 증권, 지주사/センチメント 개선주 - 화학/정유, 철강/비철금속

-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우선적인 관심 종목군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증권, 지주사 업종 내 실적 개선주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종목군의 경우 최근 상대 수익률이 높았지만, D램가격의 안정세와 아이폰 6 출시 등에 따른 실적개선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접근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지주사의 경우 동종 업종 내에서의 종목별 수익률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자회사들의 실적개선을 통해 2/4분기 이익모멘텀이 가시화될 수 있는 종목군 중심의 선별적인 대응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 한편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군 내에서 최근センチメント가 개선되는 화학/정유 및 철강/비철금속 등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화학/정유의 경우 이라크 내전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일부 석유화학 제품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실적모멘텀의 바닥권 통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철강은 전반적으로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2/4분기 실적이 전분기대비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며, 최근 아연을 중심으로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실적모멘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Market Issue

빛(Li-Fi)으로 구현되는 사물인터넷 시대

빛(LED)을 통한 통신혁명, Li-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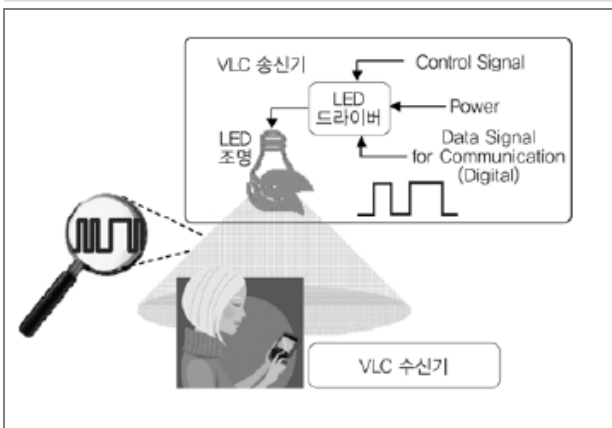
(1) 라이파이(Li-Fi)란?

- 라이파이(Li-Fi : Light Fidelity)란 발광 다이오드의 가시광선 빛을 이용한 이동통신 기술로 2011년 영국 에든버러대 해럴드 하스 교수가 와이파이(Wi-Fi)를 꺾을 새로운 대항마라는 의미로 명명함. 라이파이는 2진법을 사용 LED 조명의 점멸(On-Off)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함. 즉, 송신기는 전기신호를 빛으로 변화시키는데, 디지털 신호를 변조한 값이 LED 조명의 밝기에 합쳐져서 빛의 형태로 공중에 발산됨. 수신기는 빛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발산된 빛이 수신기 내부의 렌즈나 광 필터를 통과해서 PD(Photo Diode)에 도달하여 전류로 인식되는 원리임(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라이파이는 기존 와이파이나 LTE보다 최소 50~100배 정도 빠름. 최근 출시된 LTE-A의 경우 라이파이와 동일한 직교주파수 분할다중 발신(OFDM : 고속의 전송률을 갖는 데이터열을 낮은 전송률을 갖는 다수의 데이터열로 분할하고 다수의 분반송파를 사용해서 동시에 전송, 수신지에서 다시 하나로 합치는 방식) 방식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함. 그러나 같은 OFDM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라이파이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LTE-A보다 66배 정도 빠름. 이동통신과 무선랜의 주파수 영역이 대략 300MHz ~ 30GHz인 반면, 가시광선의 주파수 영역은 385 ~ 789THz(1THz=1,000GHz)로 전체 무선통신 주파수보다 무려 1만배 이상 넓기 때문임.

(2) 라이파이(Li-Fi)의 장점과 단점

- 라이파이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1) 가시광선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방법이기 때문에 Wi-Fi와 달리 전자파 방출에 따른 인체 영향이 없고, 2) 가시광선은 전 세계 공통 주파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 3) 가시광선의 직진성 때문에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 보안문제에 있어 기존 통신환경에서보다 안전성 보유, 4) 신호전송체계가 디지털에서 디지털로 이동해 별도의 컨버터가 필요하지 않음, 5) 무선전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 원자력발전소 등 전파 간섭이 민감한 장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함.
- 다만, 가시광선의 직진성으로 인해서 회절이나 반사가 불가능하므로 장애물에 의한 통신경로 차단이 빈번할 수 있고, 광원을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인 관계로 실외의 경우에는 빛의 간섭효과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움. 또한 통신의 양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단말기에서 전등으로 송출하는 통신과위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지님.

라이파이(Li-Fi)의 작용 원리



자료: KISA

통신기술별 특징

분류	설명	관련기술	특징
유선 광통신	유선의 광섬유 내부에 광 송수신하는 기술	FTTH, 광전달망, 광가입자망, PON, WDM	유선 고속통신, 1,500nm 파장사용
무선 광통신	LD(Laser Diode)를 이용하여 무선 광 송수신하는 기술	LD 통신, 건물간 무선통신, FSO(Free Space Optic), 광무선통신, IR	장거리 고속 무선통신, 780nm이상 파장 사용
가시광 무선통신	LED조명을 이용하여 가시광 무선 송수신하는 기술	가시광 무선통신	조명 인프라 통신, 센서/측위 응용가능, 380~780nm 가시광 인체 안전망 파장

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라이파이(Li-Fi), 통신기술 혁명으로 사물인터넷 시장 확산의 촉매제

(1) 각국의 기술개발 현황 및 상용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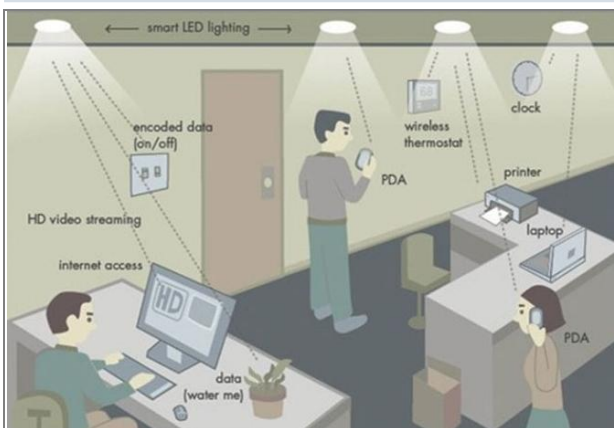
- 최근 IT 패러다임은 스마트 기기의 확산을 필두로 초고속 통신 인프라 구축, 클라우드와 Big Data 기술진화 등 제반 기술이 확보되면서 만물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장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향후 LED 조명을 통한 대용량 데이터의 초고속 전송을 가능케 하는 라이파이 상용화는 LED 조명시장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시장 확산에 있어서도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 이러한 잠재적 부가가치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라이파이의 기술개발 및 특허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음.
- 일본은 LED 원천기술과 제조기업이 많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무성 지원 하에 2003년부터 컨소시엄 구성.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관련기술 특허출원 2위를 점유하고 있는데, 2000년 중반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기술개발 진행 중. ETRI가 개발한 LED 조명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가시광 무선통신기술인 'VLC-PHY(Visible Light Communication)'는 2011년 국제표준으로 채택.
- 한편, 상용화에 있어서는 프랑스가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 라이파이 응용 제품 및 솔루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라이파이 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예상됨. 공공조명업체인 '토른'사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20여개의 라이파이 기반 LED 조명을 테스트하고 있고, 프랑스 전력공사의 자회사인 'EDF 옵티멀 솔루션스'는 토른과 함께 프랑스 남부 도시에 라이파이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2개의 시범용 시설을 설치했음. 국철기업인 'SNCF'는 지난해부터 파리 몽파르나스 역사에서 승객안내와 정보 제공용 라이파이 서비스를 시험 중임.

국가별 가시광선 통신기술(Li-Fi) 기술개발 현황

국가	연도	연구 진행 상황
일본	2000	일본 게이오대학의 Tanaka 연구진이 LED 무선통신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
	2002	Tanaka 연구진이 LED 가시광선 통신시스템을 최초로 개발
	2008	도쿄 국제전자 박람회에서 최초로 LED 통신시스템 출시, 최장 전송거리 20cm 기록
중국	2006	베이징대학에서 최초로 가시광선 신호 수신방안을 제시하고 실험 시작
	2008	광저우 지난대학의 천창잉 교수가 중국 최초로 LED 가시광선 통신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최장 전송거리 2.5m를 기록함
	2013	푸단대학의 초난 교수가 1Watt LED 전구로 4대의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실험에 성공했으며 최고속도는 3.25Gb/s를 기록함 9월 주하이 화저그룹은 LED 가시광선 통신연구에 20억 위안 투자, 12월 충칭은 가시광선 통신기술 보급 시범도시로 선정됨
영국	2009	100Mb/s의 가시광 통신에 성공했으며 다음 해 실내 가시광통신을 선보임
	2011	에든버러대 Harald Haas 교수가 가시광선 통신기술을 Li-Fi로 명명했으며 LED 조명을 이용해 고화질 동영상의 컴퓨터 전송에 성공함
	2013	Li-Fi 기술을 통해 최고 10Gb/s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기록함
독일	2010	백광 LED를 통한 가시광 통신시스템 개발. 세계에서 가장 빠른 513Mb/s 속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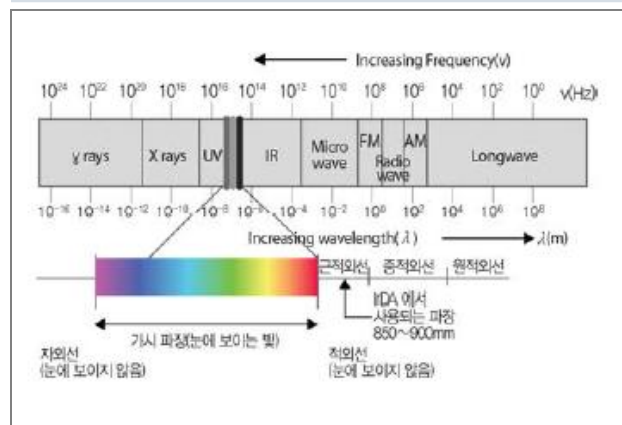
자료: KOTRA,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라이파이(Li-Fi) 적용 예



자료: NIPA

라이파이(Li-Fi) 파장대역



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2) 라이파이(Li-Fi)의 활용방안

- 라이파이가 상용화된 경우, 지능형 교통시스템, 고속 통신, 콘텐츠 전송 등 사물인터넷 구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됨. 특히, 가시광을 이용하는 라이파이의 특성상 실내 내비게이션에 특화된 장점을 보유. 단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 내비게이션과 달리 실내 내비게이션은 실내 공간에 대한 풍부한 정보제공을 통해 마케팅, 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의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실내 내비게이션은 실내를 주축으로 확장된 서비스 플랫폼으로 작용 가능할 전망.
- 글로벌 기업들은 실내 내비게이션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선, 구글은 2011년부터 'Art Project(전 세계 미술관에 걸린 그림들을 PC에서 보게끔 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실내 내비게이션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애플 역시 지난해 실내 GPS 개발사인 'Wi-FiSLAM'을 2천만달러에 인수했고, 블루투스용 실내 위치확인 시스템인 아이비콘(iBeacon)을 iOS7에 탑재하며 시장에 진입했음. 필립스는 애플의 아이비콘을 활용해 매장용 LED 조명 시스템에 기반한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테스트 중에 있음.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가 인수했던 나브텍의 기술을 MS Bing 지도와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내 내비게이션 사업들은 기존 통신주파수를 이용한 것으로 최근 정보보안이슈가 부각되면서 안정성과 보안성이 뛰어난 라이파이의 채용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그 밖에 스마트 가전과 모바일 기기 등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연결하고 통합 플랫폼으로 제어·관리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 역시 집안 내 LED 조명을 이용한 라이파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최근 자동차 헤드램프와 후미등에 고출력 LED가 장착되는 추세에 있어 향후 라이파이를 이용해 자동차와 자동차간, 교통신호와 자동차간 정보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일본에서는 가시광 통신을 이용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전력선 통신과 융합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음.

(3) 라이파이(Li-Fi)의 가능성과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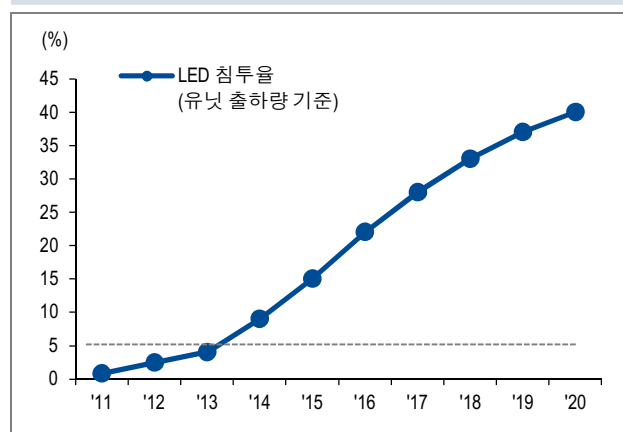
-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각국 정부에서는 LED 조명 확산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라이파이를 위한 LED 보급은 부가적인 노력없이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상황.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 6월에 2020년까지 국가전체 LED 조명 보급률을 60%까지 끌어올리려는 'LED 조명 2060' 정책을 수립했음.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유럽지역의 경우 2012년 기준 14% 수준이었던 LED 조명시장의 비중이 2020년 9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글로벌 LED 조명시장의 침투율(출하량 기준)은 2013년 4%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나, 2014년 9%, 2015년 15%, 2016년 22%로 침투율이 가속화되며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할 전망.
- 라이파이는 LED 조명의 빠른 확산추세와 인허가가 필요 없는 가시광선 사용으로 인프라의 가치가 타 무선통신기술보다 우위에 있음. 다만, 전송거리, 속도 등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물을 통과할 수 없는 가시광선의 성질은 라이파이의 한계요인임. 현재 기술수준으로 전송속도 측면에서는 무선랜과 보안성 측면에서는 NFC(근거리 무선통신기술)와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기존 기술과의 상충이 아니라 보완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점진적으로 니치마켓을 점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라이파이(Li-Fi) 활용방안

서비스 종류	세부내용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가로등/신호등에서 차량으로 영상, 음성,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자동차와 자동차 간 통신을 통한 자율주행 시스템 지원 - 등대·선박 혹은 선박간 통신, 충돌방지 시스템 등에 활용
고속통신	- 고화질 영상(HD, 4K 등) 전송, 백본망 구성, 사용자 밀집지역에서의 무선통신환경 개선
콘텐츠 전송	- 박물관 전시물에 대한 설명, 매장안내 및 상품정보제공, 다국어 제공, 실내 내비게이션, 청소로봇 등에 활용
유비쿼터스 실현	- 단거리 홈네트워크, 센서네트워크, M2M(Machine-to-Machine), 핸드폰간 파일 공유 등 - 전력선통신과 결합해 기존 시설물 변경 없이 무선 통신환경 제공

자료: NIPA,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2014년 기점으로 LED 조명 보급을 가속화 전망



자료: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전망

라이파이(Li-Fi) 관련주

종목명	내용
서울반도체	아크리치2 판매호조로 LED 조명비중 지속 확대 중(2013년 50%), 매출처 다변화에 따른 자동차용 LED 비중 증가 기대
LG이노텍	1/4분기 LED 조명 매출비중 30% 달성, 수익성 높은 하이파워 제품 매출 확대로 제품 믹스 개선
사파이어테크	글로벌 사파이어 단결정 시장 25% 점유, LED 조명시장 성장으로 공급과잉 해소 국면 진입 및 IT향 사파이어글래스 채용 확대
한솔테크닉스	조명 및 BLU용 LED 수요 동반 강세로 사파이어 잉곳 출하량 증가 및 가동률 상승
오이솔루션	통신장비 내에서 전기신호를 광신호 또는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해주는 광트랜시버 국내 1위, 세계 10위 업체
옵티시스	영상신호용 디지털 광링크 및 관련기기 제조업체로 광 데이터 전송관련 기술 및 솔루션 보유
유양디앤유	스마트 LED 조명 제어기술 특허 취득. 신규사업으로 ETRI와 공동으로 가시광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빛과전자	광송수신용 모듈 및 광소자부품 등을 제조, 판매. LTE서비스 시행으로 FTTH용 광모듈에서 이동통신용 광모듈로 매출 확대 중
필룩스	정부로부터 'LED 시스템조명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업으로 선정, 스마트 조명 응용 플랫폼 개발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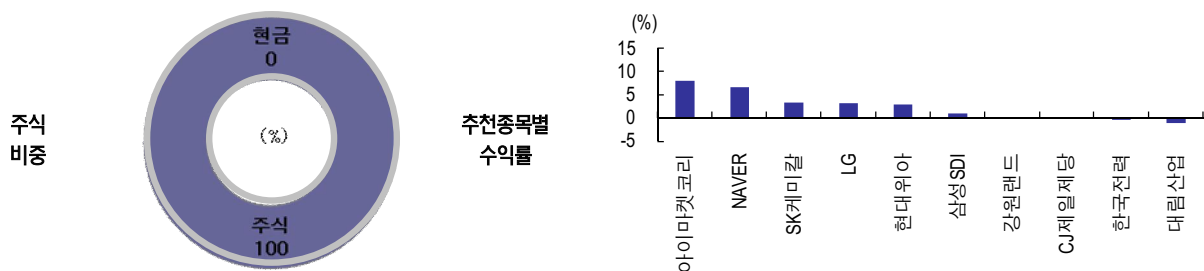
자료: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 라이파이(Li-Fi) 관련주는 단순히 관련종목을 기술한 것으로 추천종목이 아닙니다.

Large Cap 추천종목

- Large Cap 선정
- Large Cap Pool 30종목을 대상으로 저평가되었거나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을 선정
- 추천종목수
- 최대 10종목 이내로 압축하여 추천.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비중 조절
- 목표수익률
- 10~20%. 단, 시장상황이나 당사의 위험관리원칙에 따라 변동가능 (10% 로스컷 룰 적용)
- 추천기간
- 2~3주 내외. 단, 시장상황이나 당사의 위험관리원칙에 따라 변동가능
- 성공률
- 전체 추천종목 중 절대수익률이 (+)를 기록한 종목의 비율

누적 수익률 (연초 이후)	Large Cap	-5.63%	누적 성공률 (연초 이후)	총 추천종목수	88개 종목
	벤치마크	-0.56%		성공종목수	36개 종목
	초과수익률	-5.06%p		성공률	40.9%



* 벤치마크는 KOSPI(90%)와 KOSDAQ(10%)를 가중평균한 지수를 사용합니다

(단위: 원, %)

종목(코드)	현재가	추천일	수익률	투자 포인트
강원랜드 (035250)	28,850	6/26	-	• 하나로 VIP 고객이 증가하며 드랍액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테이블 대비 머신 비중이 높아지며 홀드를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1/4분기에 이어 비용 통제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어 2/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383억원(+9.4%, YoY), 1,119억원(+20.3%, YoY)에 이를 전망(Fn가이드 컨센서스 기준).
한국전력 (015760)	39,700	6/25	-0.50	• 동사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수요분산, 상대적으로 원가가 저렴한 석탄과 원전 정상화 등 기저발전확대를 통한 발전믹스 개선,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등 정부의 발전정책의 기초적 변화에 따른 수혜 예상. 여기에 원화 절상에 따른 이익개선 기대도 긍정적 • 여기에 지난해 11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여름철 전력요금 기간을 과거 2개월(7~8월)에서 3개월(6~8월)로 늘림으로서 오는 6월부터 여름철 전력요금이 일반용과 산업용에 적용될 예정임. 따라서, 2분기 실적은 계절적 비수기지만, 6월 여름철 요금 적용으로 전력판매 단가 상승으로 기대이상의 이익 달성이 가능할 전망
CJ제일제당 (097950)	343,000	6/25	0.00	• 중국 라이신 평균 가격이 지난 4월 저점 형성 후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중국 내 라이신 기업들의 감산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점진적으로 해소되며 글로벌 라이신 시장 지위를 강화해 온 동사가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릴 것으로 기대 • 식품 부문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확보해놓은 저가 원재료가 투입되어 수익성 향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올해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1.8조원(+9.5%, YoY), 5,117억원(+48.1%, YoY)에 이를 전망(Fn가이드 컨센서스 기준)

주: * 는 KOSPI 200 또는 KOSDAQ 1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목임.

종목(코드)	현재가	추천일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케미칼 (006120)	64,000	6/20	3.23	- 바이오티셀 판매가격 상승 및 PETG와 유틸리티 매출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되며, 2014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조 3,853억원(+1.6%, YoY), 1,981억원(+2.1%, YoY)에 이를 전망(Fn가이드 컨센서스 기준) - 프리미엄 백신 8종을 개발 중에 있으며, 계절독감백신, 수두백신, 폐렴구균백신 한국 임상 3상 진행에 있는 등 백신을 기반으로 한 생명과학 부분의 장기성장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
대림산업 (000210)	80,400	6/17	-1.10	2/4분기 이후 말레이시아 라피트 정유공장, 쿠웨이트 heavy oil 등 신규 수주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해외부문의 원가율 개선에 힘입어 분기별 실적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 자회사의 실적개선으로 지분법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 - 순현금 상태인 양호한 재무건전성 보유, 부진했던 해외신규 수주 우려 완화 등으로 경쟁사대 비 저평가 상태(Fnguide 컨센서스 기준 2014년 PBR 0.62배)에 놓여 있는 동사의 밸류에이션 매력에 부각될 수 있는 시점
삼성SDI (006400)	165,500	6/12	0.91	- 지난 3월 제일모직과 1:0.44 비율로 합병을 결정해 7/1일자로 합병 법인의 공식 출범이 예정되어 있으며, 동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유동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지분가치 확대에 주목 2/4분기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태블릿PC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향 매출 및 BMW i3 양산 본격화에 따른 중대형 전지 매출 증가 기대. 2/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2,123억원(-7.24%, y-y), 246억원(-23.8%, y-y)으로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흑자전환 예상(Fnguide 컨센서스 기준)
LG (003550)	63,200	6/5	3.10	- 동사의 자회사인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실적 안정성으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전망. LG전자의 경우 G3 출시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북중남미 시장 공략으로 점진적인 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LG디스플레이는 애플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에 따라 하반기 실적 개선폭이 크게 나타날 전망. 한편, 디스플레이 구동 칩 설계업체인 실리콘웍스를 자회사로 편입한 점은 반도체분야의 밸류체인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현대위아 (011210)	184,500	6/5	2.79	- 최근 연비 개선 기술로 엔진 다운사이징이 각광 받는 상황에서 다운사이징 부품 (T/C 등)을 양산 계획 중인 동사의 수혜가 중장기적으로 클 전망 - 현대차 CV Joint 30만대(11월), 중국 산동법인에 초기 20만대(2015년), 중국 산동법인 중국 외 지역 공급 등 현대차 증설에 따른 수혜 예상되며, 2014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6,122억원(+7.3% y-y)과 5764억원(8.9% y-y)으로 전망 (FnGuide Consensus 기준)
NAVER (035420)	822,000	5/30	6.48	1/4분기 마케팅비용이 전분기대비 49% 감소한 반면, 가입자확보가 더욱 가속화되며 LINE에 의한 이익레버리지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판단. - 한편, LINE의 일본외지역 매출비중은 여전히 2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 출시한 LINE 쿠키런 등 게임의 경우 일본외지역 매출액이 일본지역 매출액을 넘어서는 등 콘텐츠의 현지화작업을 통해 일본외매출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
*아이마켓 코리아 (122900)	37,750	5/22	7.86	- 안연케어 인수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중국 포커스테크놀로지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중국 MRO 시장 진출 등 적극적 M&A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 긍정적 - 삼성 고객사 매출은 전년대비 10% 증가하며 물량감소 우려 해소가 기대되는 가운데 비삼성향 매출이 전년대비 43% 증가하며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 2014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 508억원(+22.2% , y-y)와 723억원(+46.1%, y-y)로 전망(Fnguide 컨센서스 기준)

주: * 는 KOSPI 200 또는 KOSDAQ 1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목임.

신규추천종목

강원랜드(2/4분기에도 드랍액과 홀드율 상승에 따른 호실적 기대)

제외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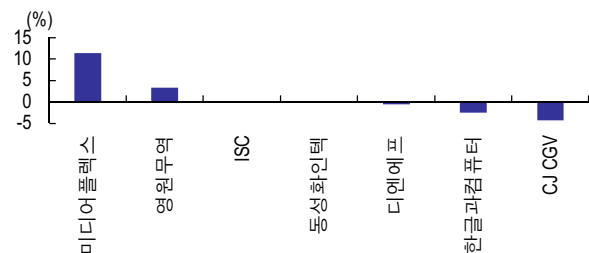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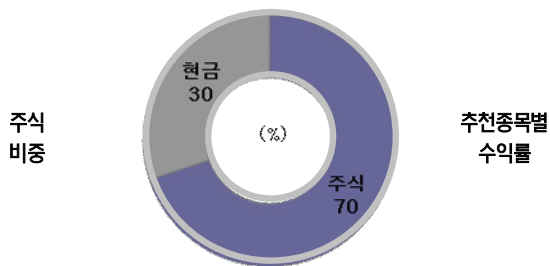
현대제철 (+5.48%, 2/4분기 실적 기대감과 함께 꾸준한 기관매수세 유입으로 양호한 수익률 기록중이나 직전 고점 부근에서의 상승탄력 둔화를 반영해 차익실현)

이주호_02) 768-7991, lmissk2000@wooriwm.com / 이현주_02) 768-7986, leehj@wooriwm.com

Mid Small Cap 추천종목

- Mid Small Cap 선정
 - 중소형주(시가총액 1조원 이하)를 대상으로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유동성이 뒷받침되는 기업
- 추천종목수
 - 최대 10종목 이내로 압축하여 추천.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비중 조절
- 목표수익률
 - 10~20%. 단, 시장상황이나 당사의 위험관리원칙에 따라 변동가능 (10% 로스컷 를 적용)
- 추천기간
 - 2~3주 내외. 단, 시장상황이나 당사의 위험관리원칙에 따라 변동가능
- 성공률
 - 전체 추천종목 중 절대수익률이 (+)를 기록한 종목의 비율

누적 수익률 (연초 이후)	Mid-Small Cap	+1.24%	누적 성공률 (연초 이후)	총 추천종목수	75개 종목
	벤치마크	-0.56%		성공종목수	35개 종목
	초과수익률	+1.81%p		성공률	46.7%



* 벤치마크는 KOSPI(90%)와 KOSDAQ(10%)을 가중평균한 지수를 사용합니다

(단위: 원, %)

종목(코드)	현재가	추천일	수익률	투자 포인트
*ISC (095340)	21,700	6/26	-	- 반도체 후공정에 적용되는 Silicon Rubber Test Socket 제조업체. 반도체 업황 호조로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변화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어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모바일 디바이스용 실리콘 러버 소켓 채용 증가가 실적을 견인. 자회사인 지맥스의 감가상각 종료로 2016년 상반기로 예정된 가운데 지맥스 관련 투자손실 축소로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디엔에프 (092070)	14,450	6/25	-0.68	- DRAM 미세화소재(DPT, High-K) 및 3D-NAND용 소재(HCDS)의 공급량 증가로 2/4분기 매출액 143억원(225.0% y-y), 영업이익 35억원(흑자전환)을 달성하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FnGuide 컨센서스 기준) - 주요 고객사의 20nm급 이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DPT, HCDS, High K 소재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하반기에는 글로벌 신규 고객 확보를 추진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시 실적 개선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
*CJ CGV (079160)	46,550	6/24	-4.31	5월 들어 역린(354만명), 엑스맨 (279만명), 표적(272만명), 어메이징스 파이더맨2(217만명, 누적 관객 수 416만명) 등이 흥행에 성공하며 4~5월 누적 관객 수는 전연동기대비 2.3%로 증가함. - 또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2D 영화 단가인상 효과가 2/4분기부터 본격 반영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동사의 2014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원(+17.0%, YoY), 618억원(+20.0%, YoY)에 이를 전망(Fn가이드 컨센서스 기준).

주: * 는 KOSPI 200 또는 KOSDAQ 1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목임.

종목(코드)	현재가	추천일	수익률	투자 포인트
*미디어 플렉스 (086980)	4,425	6/17	11.32	- 동사는 영화 투자 및 배급을 주로 하고 있으며 최근 개봉한 '끝까지간다'가 양호한 흥행성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의 한 수', '군도: 민란의 시대' 등 기대작들이 대기하고 있어 올 하반기 양호한 실적 증가 예상 - 중국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영화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동사는 지난 4월 정부의 한중 합작펀드 설립 추진(2015년 2,000억원) 등에 따른 수혜 전망
한글과컴퓨터 (030520)	24,000	6/11	-2.63	1/4분기 실적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한컴오피스 가격상승 효과와 개인용오피스 정품 사용비율 상승 등으로 분기 최대실적 시현함. 또한 4월부터 삼성전자 등 대형거래선에 대한 개인용오피스 특판 매출도 시작함에 따라 향후 실적 증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 한컴오피스 SW가 삼성전자 태블릿PC에 신규 진입하면서 2/4분기부터 태블릿PC 向 로열티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전망. 여기에 클라우드 시장 성장에 따른 씽크프리 수혜 전망도 긍정적
동성화인텍 (033500)	11,950	5/21	0.00	- LNG보냉재 사업호조와 국내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샌드위치판넬 공급량 지속으로 1/4분기 호실적 달성. LNG 호황으로 동사 수주기반 역시 기존 LNG선에서 F-LNG, 육상용 보냉재 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어 성장 모멘텀 유효 - 적자사업부문의 철수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가운데, 2~3분기 중 추가 수주와 상반기 LNG부문 설비 증설 마무리 등 실적 개선세 지속될 전망
*영원무역 (111770)	45,000	5/20	3.21	- 증설효과로 1/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시현. 유럽 지역 신규 바이어 주문 확대, 미주 메인 바이어들의 주문 회복, 기저 효과 등으로 2/4분기에도 매출확대와 수익성 개선 지속될 전망 - 신규증설 관련비용 완화 및 증설된 설비라인의 생산성 효율화, 중국사업 축소,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성수기 진입 등에 힘입어 실적 모멘텀

주: * 는 KOSPI 200 또는 KOSDAQ 1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목임.

신규추천종목

ISC(실적 모멘텀 강화 전망)

제외종목

게임빌(+16.05%, 3/4분기 신규 게임 출시 기대감이 반영되며 높은 수익률 시현으로 차익실현)

김현승_02) 768-7788, khs8010@wooriwm.com

Large Cap Pool

(단위: 억원, %, 배, %)

섹터	코드	종목명	매출액			영업이익			밸류에이션 지표(2014년)		
			13년(P)	14년(E)	증감율	13년(P)	14년(E)	증감율	PER	PBR	ROE
IT	066570	LG전자	581,404	609,600	4.85	12,847	17,593	36.95	18.0	1.1	14.7
	000660	SK하이닉스	141,651	160,250	13.13	33,798	45,421	34.39	9.7	2.1	31.1
	035420	NAVER	23,120	27,725	19.92	5,241	7,810	49.00	47.2	10.6	46.8
	006400	삼성SDI	50,165	48,666	-2.99	-274	636	흑자전환	30.1	1.0	0.9
	005930	삼성전자	2,286,927	2,237,552	-2.16	367,850	351,879	-4.34	7.8	1.3	22.1
경기소비재	008770	호텔신라	22,970	28,505	24.10	866	1,412	63.08	37.2	4.6	19.1
	035250	강원랜드	13,613	14,723	8.16	3,880	4,906	26.43	16.4	2.1	18.5
	035760	CJ오쇼핑	25,135	28,650	13.98	2,582	2,813	8.96	13.8	2.4	34.4
	005380	현대차	873,076	907,836	3.98	83,155	86,655	4.21	7.4	1.0	15.2
	011210	현대위아	70,920	76,063	7.25	5,292	5,761	8.86	10.3	1.8	23.2
금융	024110	기업은행	86,941	87,972	1.19	11,424	13,889	21.57	8.5	0.6	9.3
	071050	한국금융지주	4,754	7,845	65.04	784	2,454	213.09	14.8	0.8	8.4
산업재	012750	에스원	12,741	17,129	34.44	1,291	1,925	49.06	23.5	2.9	22.6
	122900	아이마켓코리아	24,968	30,493	22.13	495	740	49.47	27.1	3.6	19.6
	000120	CJ대한통운	37,950	45,276	19.30	642	1,432	123.19	40.7	1.0	6.4
	086280	현대글로비스	128,613	137,961	7.27	6,369	6,972	9.47	18.3	3.5	26.7
	000210	대림산업	98,469	98,975	0.51	397	3,565	798.84	11.2	0.6	7.5
	000830	삼성물산	284,334	304,059	6.94	4,333	6,413	48.01	23.5	1.0	5.7
	012630	현대산업	42,169	45,249	7.30	-1,479	1,725	흑자전환	25.3	1.1	8.4
	002380	KCC	32,330	35,783	10.68	2,317	3,152	36.03	24.4	1.2	6.1
	001740	SK네트웍스	259,754	252,367	-2.84	2,408	2,817	16.96	13.2	0.9	10.1
	003550	LG	97,992	100,991	3.06	11,539	13,732	19.00	10.8	0.9	10.9
소재	004020	현대제철	135,328	170,183	25.76	7,626	11,793	54.65	12.6	0.6	8.7
	010130	고려아연	48,177	47,837	-0.71	5,986	6,591	10.11	14.1	1.6	15.3
	009830	한화케미칼	78,636	83,453	6.13	979	2,738	179.65	19.2	0.7	6.9
	051910	LG화학	231,436	236,686	2.27	17,430	18,307	5.03	15.2	1.7	14.8
에너지	006120	SK케미칼	82,566	83,853	1.56	1,940	1,981	2.09	23.9	1.0	15.3
유틸리티	015760	한국전력	540,378	583,147	7.91	15,190	55,596	266.01	10.9	0.5	10.5
필수소비재	001040	CJ	188,517	206,216	9.39	7,861	10,249	30.38	20.3	1.3	30.9
	097950	CJ제일제당	108,477	118,769	9.49	3,455	5,129	48.47	23.0	1.6	17.2

주: * 는 KOSPI 200 또는 KOSDAQ 1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목임.

신규편입종목

강원랜드(2/4분기에도 드랍액과 홀드율 상승에 따른 호실적 기대)

제외종목

SK C&C(+11.78%, 당 부서 포트폴리오 스코어링 순위 변경에 따라 차익실현)

WM 주식 포트폴리오

- 대상기업 • 투자정보부 Large Cap Pool과 Mid-Small Cap Pool
- 포트폴리오 구성 • Top-down 및 Bottom-up 어프로치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 추출
- • 종목수는 5개 이내로 구성. 투자정보부의 Best 투자Idea에 집중하여 유형별 수익률 극대화 추구
- 포트폴리오 유형 • 가치주 성장주, 시가총액 및 변동성 등을 기준으로 세가지 유형 제시
- Rebalancing • 주간단위. 단 시장상황이나 당사의 위험관리원칙에 따라 수시 변동 가능

WM 주식 포트폴리오 전략

국내 증시는 연초 이후 형성된 박스권 상단돌파가 빈번히 좌절되고 있는 상황. 세월호 사태 이후의 내수경기 부진 우려감, 박스권 상단부 진입에 따른 투신권의 펀드환매 물량 증가,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진 원달러 환율 등이 부담으로 작용. 하지만 2,000선 부근에서의 물량소화 과정을 저가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한국의 경상수지가 26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원화강세 속에서도 연초 이후 수출증가율(원화 기준, 2월 0.0%, 3월 2.1%, 4월 2.5%)이 꾸준히 개선됨. 또한 미 FOMC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유지 속에 ECB의 추가 금리인하가 가세할 경우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지속되며, 수급적으로 국내 증시의 매물소화 과정이 원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국내 수출경기 개선 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IT, 철강, 기계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

WM 주식 포트폴리오는 주간단위로 종목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지표 및 수익률은 일간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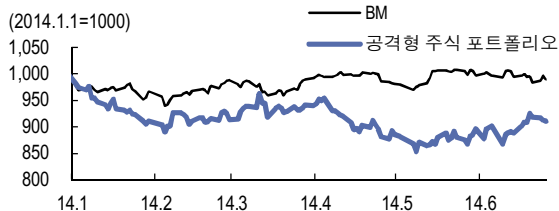
(단위: 배, %)

공격형 주식 포트폴리오

코드	종목	2014년(E)				3년 평균 EPS 증가율	시가총액 (억원)	베타 (1W,1yr)	편입일	투자 비중	수익률
		PER	PBR	ROE	배당률						
A063080	게임빌	21.35	2.67	13.47	0.00	40.96	5,140	1.57	6월 18일	20	11.30
A030520	한글과컴퓨터	16.25	3.17	22.01	0.83	45.66	5,540	1.24	6월 10일	20	1.69
A103590	일진전기	12.24	0.96	8.29	0.76	123.99	3,434	0.97	5월 9일	20	12.93
A000830	삼성물산	23.25	1.00	4.51	0.69	37.87	114,195	1.23	4월 28일	20	11.60
A120110	코오롱인더	10.32	0.94	10.14	1.03	31.64	17,794	0.78	3월 17일	20	4.57

(단위: %, %p)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



지표	구분	포트폴리오	BM
수익률	설정이후	-9.23	-0.56
	BM대비	-8.67	
	위험조정	-10.04	
변동성	일간	1.06	0.65
	주간	-	-
	Beta	1.16	

신규편입종목 없음

제외종목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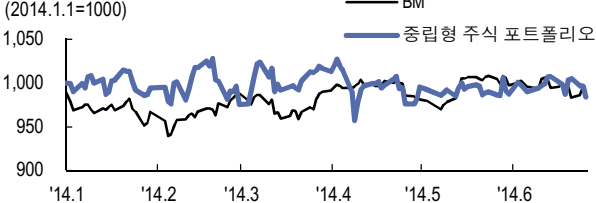
WM 주식 포트폴리오는 주식자산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제시하는 추천 포트폴리오입니다. 종목별 투자의 경우 Large Cap 및 Mid small Cap 추천종목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성향에 따라 유형별 동일 종목 및 비중 투자를 권장합니다.

(단위: 배, %)

중립형 주식 포트폴리오

코드	종목	2014년(E)				3년 평균 EPS 증가율	시가총액 (억원)	베타 (1W,1yr)	편입일	투자 비중	수익률
		PER	PBR	ROE	배당률						
A021240	코웨이	22.54	5.46	28.40	1.86	13.62	64,785	0.60	6월 16일	20	0.60
A105630	한세실업	16.72	3.25	21.32	0.58	28.96	10,740	0.55	5월 30일	20	6.55
A035420	NAVER	47.06	10.54	33.89	0.09	-11.24	270,953	1.32	5월 30일	20	6.48
A180640	한진칼	10.01	1.02	10.98	4.23	93.47	6,706	0.27	5월 27일	20	-2.07
A108670	LG하우시스	17.81	2.20	13.06	0.96	33.06	17,173	0.61	4월 1일	20	20.44

(단위: %, %p)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		지표	구분	포트폴리오	BM
 (2014.1.1=1000) — BM — 중립형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		설정 이후	-1.92	-0.56
			BM대비	-1.36	
			위험조정	-0.91	
변동성			일간	1.04	0.65
			주간	-	-
			Beta	0.67	

신규편입종목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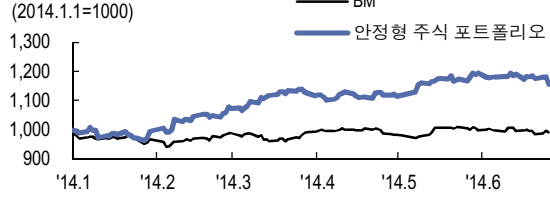
제외종목 없음

(단위: 배, %)

안정형 주식 포트폴리오

코드	종목	2014년(E)				3년 평균 EPS 증가율	시가총액 (억원)	베타 (1W,1yr)	편입일	투자 비중	수익률
		PER	PBR	ROE	배당률						
A001040	CJ	19.65	1.21	6.70	0.69	28.21	40,681	0.89	6월 24일	20	-4.76
A000120	CJ대한통운	39.37	0.93	2.98	0.43	-98.67	26,690	0.91	6월 18일	20	-2.09
A024110	기업은행	8.34	0.56	7.01	3.02	15.11	72,932	0.81	5월 21일	20	-4.00
A122900	아이마켓코리아	26.10	3.49	14.13	0.70	22.30	13,569	0.40	4월 4일	20	17.05
A011210	현대위아	10.23	1.75	18.69	0.30	10.36	47,472	0.96	3월 27일	20	6.96

(단위: %, %p)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		지표	구분	포트폴리오	BM
 (2014.1.1=1000) — BM — 안정형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		설정 이후	15.41	-0.56
			BM대비	15.98	
			위험조정	20.12	
변동성			일간	0.97	0.65
			주간	-	-
			Beta	0.79	

신규편입종목 없음

제외종목 없음

김현승_02) 768-7788, khs8010@wooriwm.com

Market Window I

주가상승률 상위종목

순위	KOSPI		KOSDAQ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종목	등락률(%)	종목	등락률(%)	종목	등락률(%)	종목	등락률(%)	종목	등락률(%)
1	씨니전자	14.9	시그네틱스	15.0	대우인터내셔널	6.5	락앤락	7.3	씨니전자	14.9
2	이필름	14.7	웹젠	14.9	SK이노베이션	4.3	쌍용차	6.3	이필름	14.7
3	국동	7.3	아이리버	14.9	GS리테일	3.5	SBS미디어홀딩	3.9	국동	7.3
4	락앤락	7.3	에스아이리소스	14.9	GS	2.1	한진중공업	3.9	유양디앤유	6.9
5	유양디앤유	6.9	위지트	14.8	SK텔레콤	1.9	동원산업	3.5	휘닉스홀딩스	5.5
6	대우인터내셔널	6.5	팜스웰바이오	14.8	현대차	1.8	팜스코	3.4	상신브레이크	4.7
7	동양3우B	6.4	갤럭시아컴즈	14.8	POSCO	1.7	SK케미칼	2.7	다우인큐브	4.6
8	쌍용차	6.3	르네코	11.5	한국타이어	1.7	NHN엔터테인먼트	2.5	노루페인트	4.4
9	휘닉스홀딩스	5.5	대한뉴팜	11.2	두산중공업	1.5	JB금융지주	2.2	남성	4.3
10	SBI모기지	5.1	화신테크	9.7	한국항공우주	1.4	한일화학	2.0	태평양물산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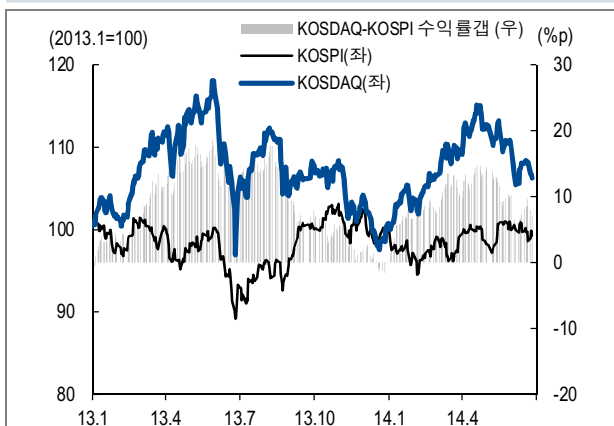
거래량 증가 상위종목

(단위: 천주, %)

KOSPI				
순위	종목	거래량	등락률	5일평균 대비(%)
1	동양	102,416	-10.1	391
2	넥솔론	2,507	-14.2	259
3	한진해운홀딩스	3,027	-10.5	242
4	동부제철	4,645	-14.4	235
5	동부하이텍	3,785	-10.0	228
6	락앤락	2,039	7.3	224
7	유양디앤유	16,712	6.9	222
8	동부건설	2,157	-14.9	218
9	동부제철우	216	-14.9	213
10	한국주철관	146	-4.6	203
11	씨니전자	1,544	14.9	192
12	노루페인트	414	4.4	182
13	대구백화점	125	-5.7	181
14	성안	359	2.5	173
15	SG세계물산	3,203	1.8	163
16	현대미포조선	222	-6.5	131
17	동부CNI	296	-14.5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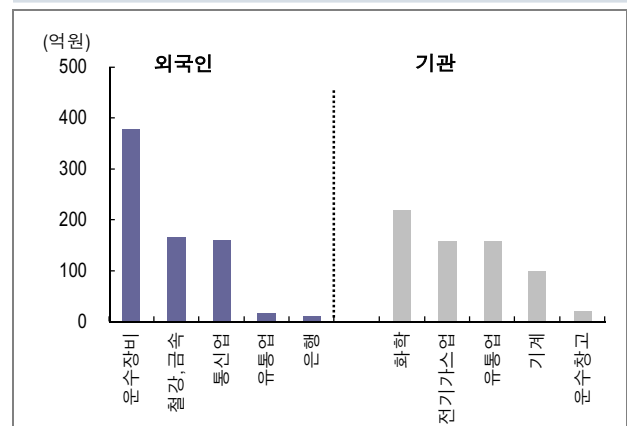
KOSDAQ				
순위	종목	거래량	등락률	5일평균 대비(%)
1	푸른기술	254	0.0	340
2	엠벤처투자	512	-0.7	299
3	인터엠	1,309	9.0	287
4	화신테크	673	9.7	284
5	원풍	368	2.0	275
6	시그네틱스	2,849	15.0	258
7	정보산업	155	-15.0	237
8	빛샘전자	1,442	0.0	231
9	잘만테크	646	1.1	212
10	인포피아	238	1.2	210
11	파워로직스	641	3.4	209
12	코리아에프티	531	9.0	183
13	수성	369	4.6	172
14	아이넷스쿨	373	4.5	171
15	온세텔레콤	2,001	0.0	168
16	한국테크놀로지	604	-3.7	164
17	특수건설	134	-2.0	143

시장별 상대강도



자료: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투자주체별 업종 순매수 상위



자료: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Market Window II

외국인 순매수 상위종목

(단위: 억원)

순위	KOSPI		KOSDAQ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1	현대차	548	다음	43
2	POSCO	112	파트론	19
3	SK텔레콤	110	게임빌	19
4	하나금융지주	87	선데이토즈	13
5	한국타이어	82	솔브레인	7
6	BGF리테일	70	다원시스	7
7	KT	62	GS홈쇼핑	7
8	SK C&C	51	리노공업	6
9	KT&G	43	나이스정보통신	5
10	고려아연	42	마크로젠	5

기관 순매수 상위종목

(단위: 억원)

종목	KOSPI		종목	KOSDAQ	
	순매수			순매수	
SK이노베이션	385		위메이드	21	
LG화학	221		CJ오쇼핑	19	
한국전력	173		컴투스	17	
LG디스플레이	151		메디톡스	12	
NAVER	139		로엔	10	
NHN엔터테인먼트	71		아프리카TV	9	
대우인터내셔널	69		이오테크닉스	8	
LG생활건강	68		위닉스	8	
CJ	64		포스코 ICT	8	
두산중공업	62		삼천당제약	8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GS	현대차2우B	CJ CGV	에스엠
대우인터내셔널		GS건설	코스맥스
대우증권		KCC	파라다이스
롯데케미칼		동부화재	한국가스공사
메디톡스		롯데칠성	한국콜마
신한지주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위메이드		서울반도체	현대미포조선
코리아에프티		세아제강	현대산업

외국인 연속 순매수

순위	KOSPI	KOSDAQ
5일이상	신한지주 삼성SDI 기업은행 고려아연 한화케미칼 넥센타이어 BGF리테일 세아베스틸 삼성정밀화학 키움증권 무학 메리츠종금증권	내츄럴엔도텍 골프존 솔브레인 리노공업 하이록코리아 녹십자셀 OCI머티리얼즈 제넥신 고영 동성화인텍 SBS콘텐츠허브 모두투어
	현대차우 SK네트웍스 서울가스 삼천리 서흥 퍼시스 대한제당 남선알미늄 이스타코	동서 로엔 크리스탈 시그네틱스 테스 이수앱지스 이애크 다원시스 HRS 애강리메텍 AST젯텍 에스폴리텍

주: 외국인 연속순매수: 전전일 기준, 5일간 순매수상위: 전일 기준

최근 5일간 순매수 상위종목(시가총액대비 순) (단위: 억원)

외국인		기관	
BGF리테일	273	JB금융지주	136
삼성생명	3,134	스카이라이프	193
삼성SDI	643	NHN엔터테인먼트	125
엔씨소프트	250	제일모직	386
한화케미칼	145	LS	177
현대산업	110	CJ오쇼핑	130
두산중공업	102	BS금융지주	189
SK이노베이션	242	아모레퍼시픽	479

외국인, 기관 순매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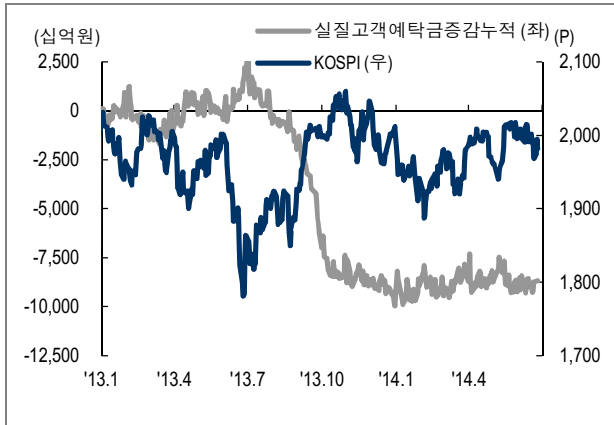
투자주체	KOSPI	KOSDAQ
외국인	현대차 KT 오리온 대우조선해양 벽산 금호석유 LG생명과학 이수페타시스 스카이라이프 현대그린푸드 국도화학 코리아씨키트	파트론 조이시티 멜파스 이녹스 우리산업 캄시스 포비스티앤씨 서한 티케이케미칼 스텍 동양이앤피 엠게임
	기아차 NHN엔터테인먼트 LG생활건강 두산중공업 현대글로벌비스 현대차2우B GS 삼성카드 GS리테일 아모레G 제일기획 롯데쇼핑	포스코 ICT ISC 셀트리온 오이솔루션 빅슬론 아나패스 상신이디피 우림기계

주: 순매수전환=2일연속, 매도>2일연속 매수, 매수금액>매도금액

- 자료: Fnguide, 한국거래소
- Market Window의 종목들은 단순 참고용 종목으로 추천종목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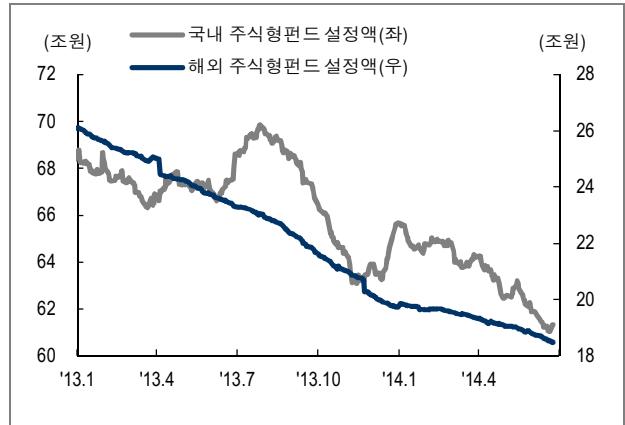
Market Indicators

증시 자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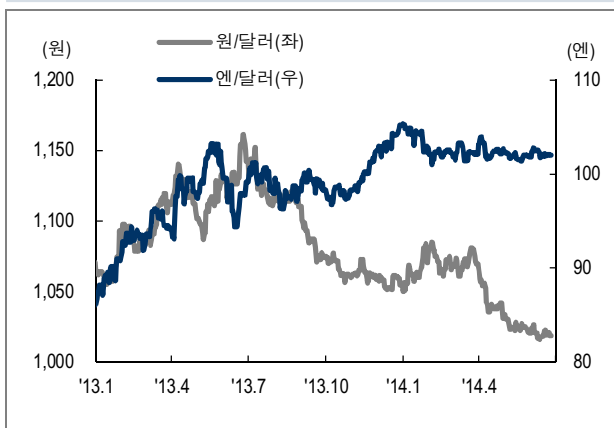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FnDataGuide,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Fund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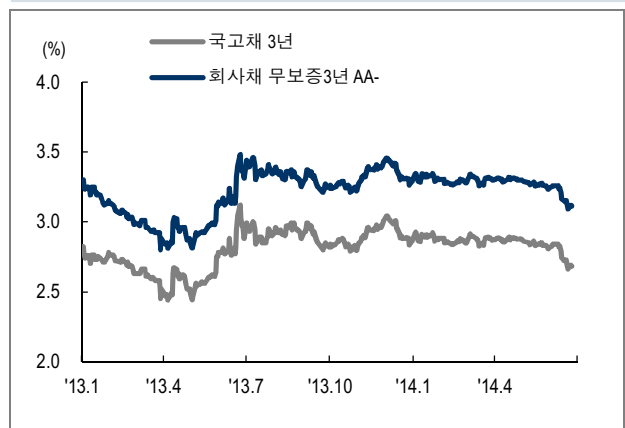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환율 동향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국고채 및 회사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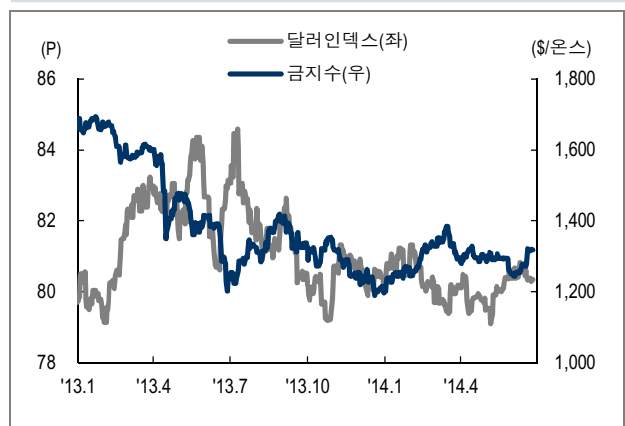
자료: FnDataGuide,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반도체 가격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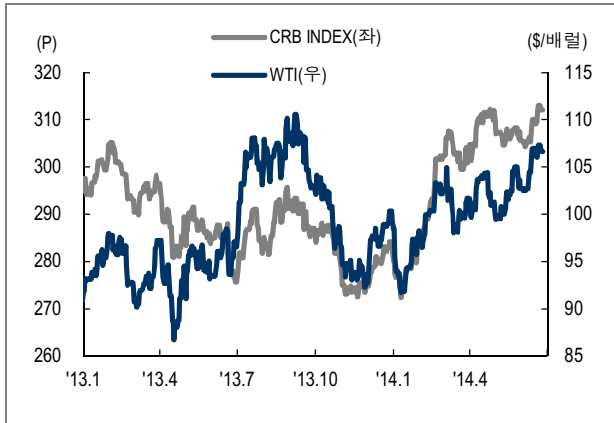
금 가격과 달러인덱스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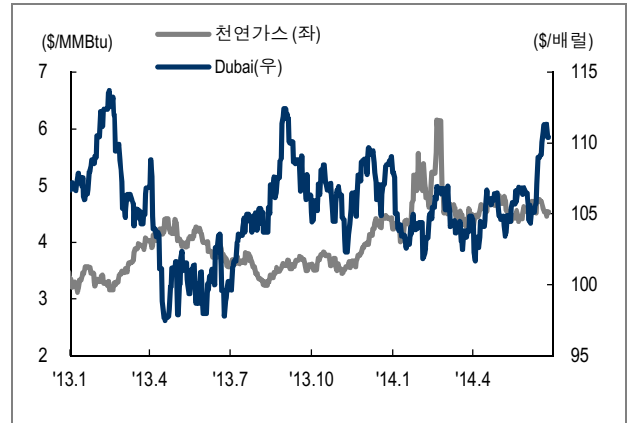
Market Indicators

CRB 지수와 WTI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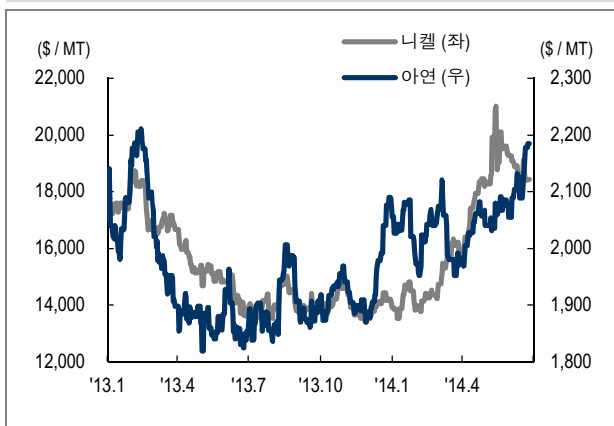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Dubai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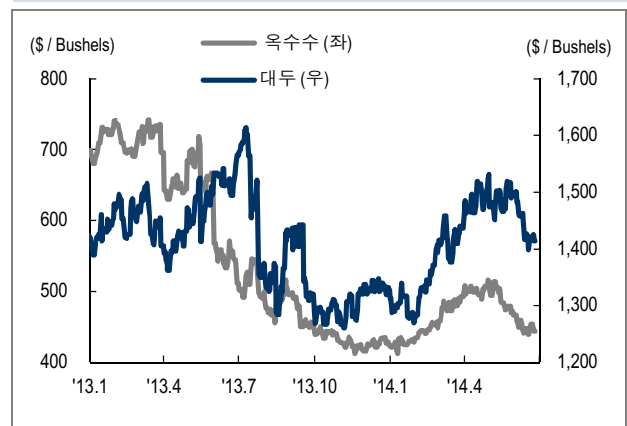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국제 금속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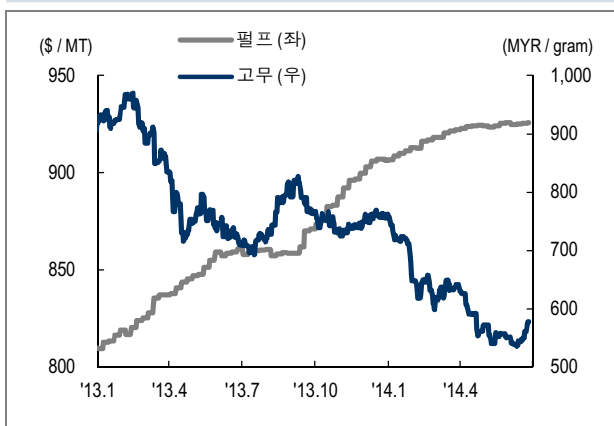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국제 곡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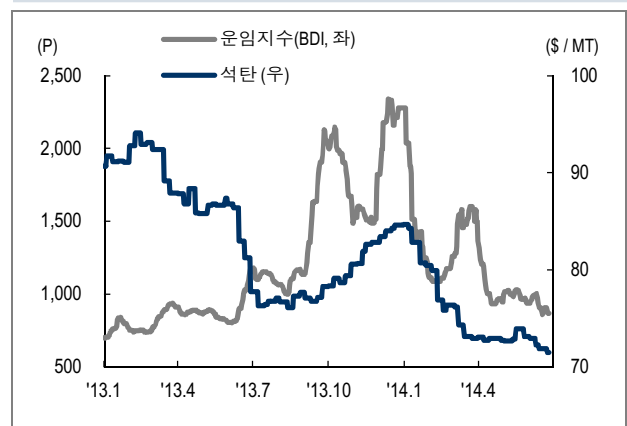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펄프와 고무 가격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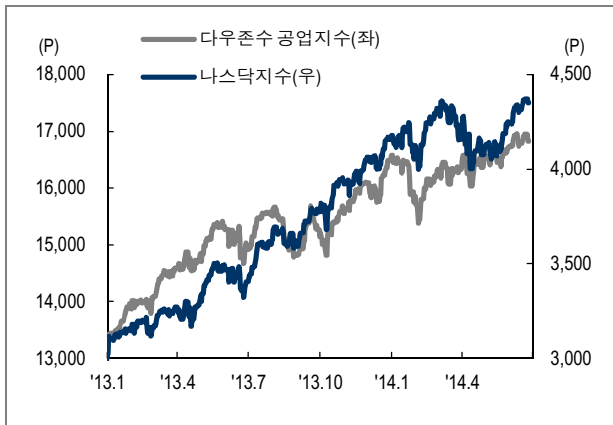
BDI 지수와 석탄가격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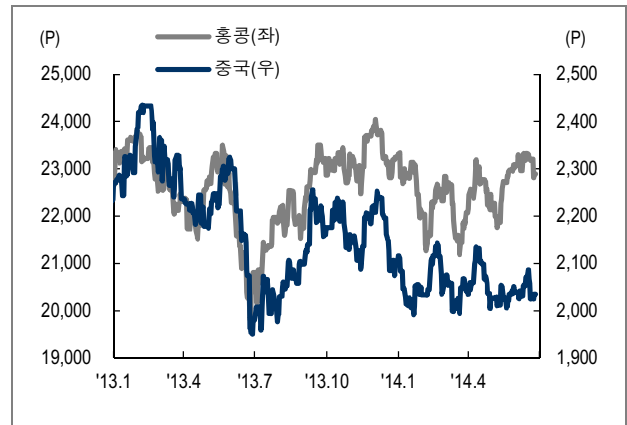
Market Indicators

미국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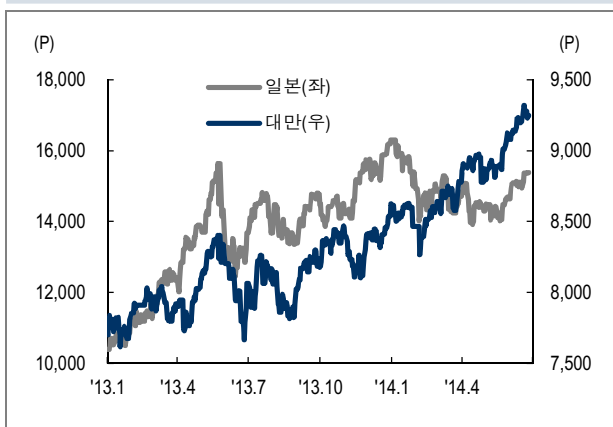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중국/홍콩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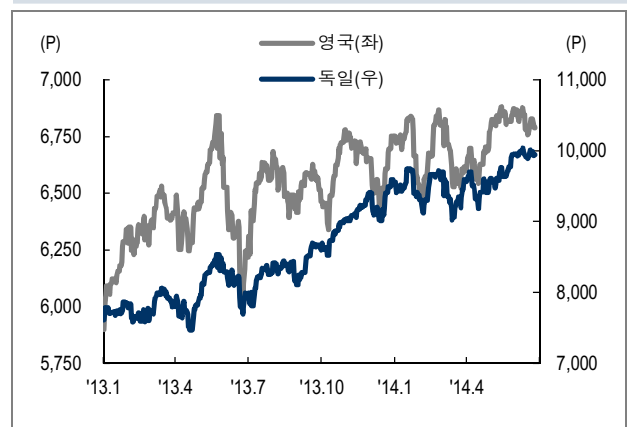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일본/대만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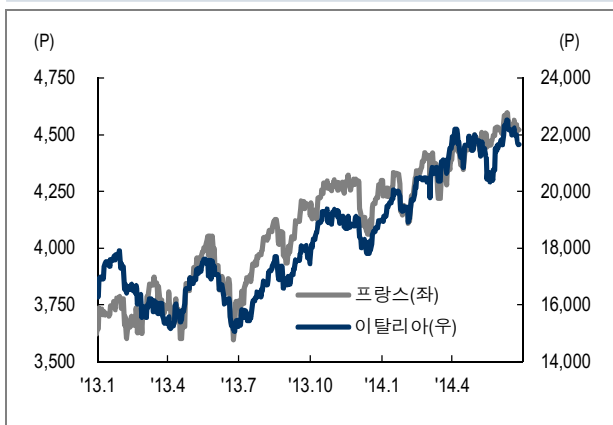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영국/독일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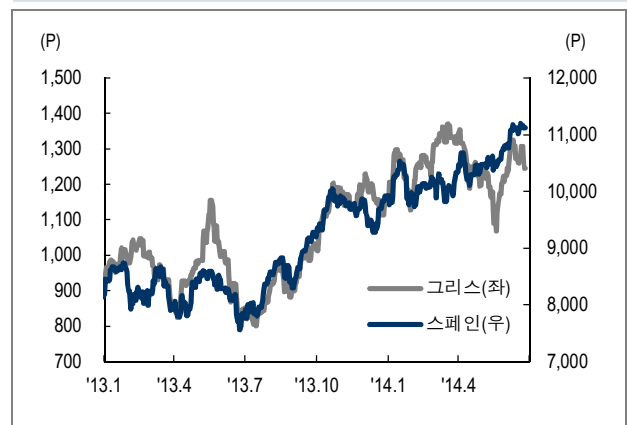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프랑스/이탈리아 증시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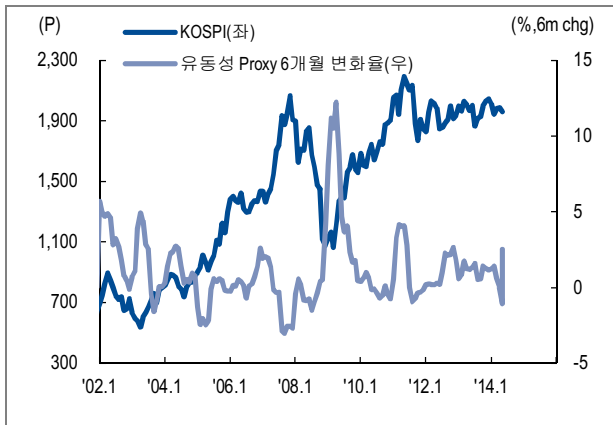
그리스/스페인 증시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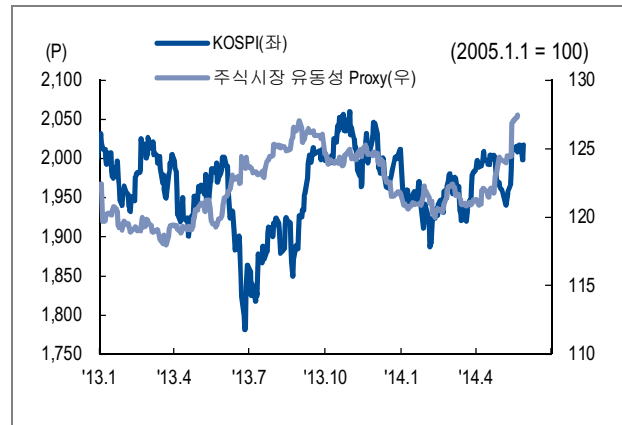
Market Indicators

유동성 Prox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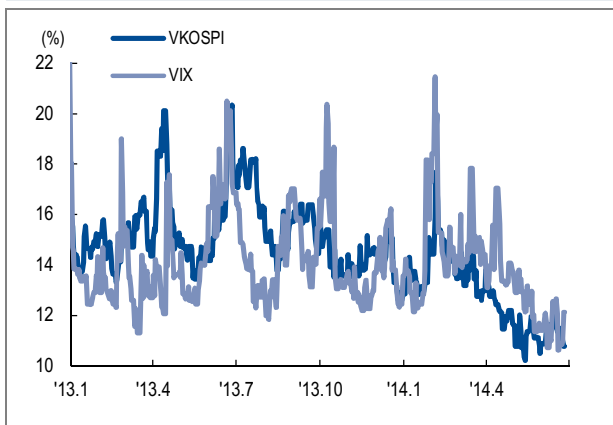
주: 본원통화 증가율 / M1증가율 / 재고순환지표 / 회사채유통수익률 / 초과유동성을 경기선행지수 산출방식으로 계산
자료: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주식시장 유동성 Prox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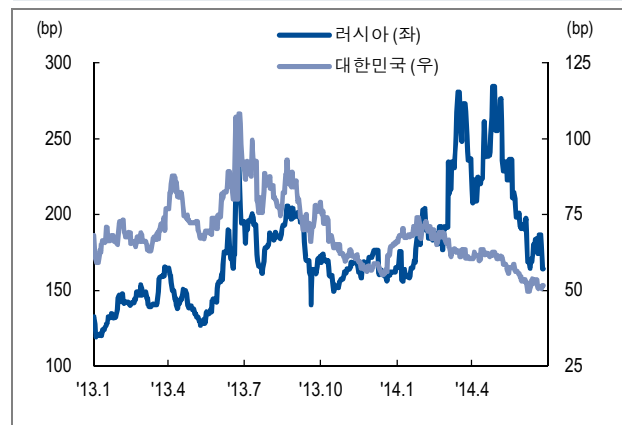
주: 고객예탁금 / 기관·외국인 누적순매수 / 미수금 + 신용융자 / 부동산자금(MMF의 역수를 지수화)을 경기선행지수 산출방식으로 계산
자료: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한국/미국 변동성 지표



자료: Bloomberg, KRX,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한국/러시아 CDS 5년물



자료: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부

Monthly Events Calendar

월	화	수	목	금
6.2 <산업/기업> 중국/홍콩 휴장(단오절)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6일) UAE/카타르, MSCI 신흥국 편입 World Economic Forum in Japan(~3일) <경제지표> 미 5월 ISM제조업 4월 건설지출 유 5월 PMI제조업	3 <산업/기업> <경제지표> 미 4월 제조업수주 중 5월 PMI제조업/PMI제조업 유 4월 실업률 5월 CPI 일 6월 BOJ금융정책회의	4 <산업/기업> 미국 베이지북 공개 한국 휴장(6/4 지방선거) G7 정상회담(~5일) <경제지표> 미 5월 ADP취업자변동 5월 ISM비제조업 4월 무역수지 유 5월 PMI비제조업 4월 PPI / 1Q GDP(확정)	5 <산업/기업> ECB통화정책회의 <경제지표> 한 1Q GDP(잠정) 유 4월 소매판매	6 <산업/기업> 한국 휴장(현충일) <경제지표> 미 5월 실업률 5월 비농업부문고용 일 4월 선행/동행지수(잠정)
9 <산업/기업> <경제지표> 일 4월 경상수지 1Q GDP(확정)	10 <산업/기업> 미 E3 게임쇼(E3 Expo 2014) <경제지표> 한 4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5월 인천공항 수송통계(여객&화물) 미 4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5월 도매재고 중 5월 PPI / CPI 일 5월 M2	11 <산업/기업> 삼성 갤럭시 프리미어 2014 OPEC 총회 <경제지표> 한 5월 실업률 미 5월 재정수지	12 <산업/기업> 한 5월 선물 · 옵션만기일 금융통화위원회 <경제지표> 미 5월 소매판매 4월 기업재고 유 4월 산업생산 일 4월 기계수주	13 <산업/기업> KOSPI 200 정기변경 일 선물옵션만기일 브라질 월드컵(~7/14) <경제지표> 미 5월 PPI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잠정) 중 5월 소매판매/광공업생산 유 4월 무역수지 일 6월 BOJ금융정책회의 4월 광공업생산/설비가동률
16 <산업/기업> <경제지표> 미 5월 광공업생산/설비가동률 6월 NAHB 주택시장지수 유 5월 CPI	17 <산업/기업> FOMC(~19일) <경제지표> 미 5월 CPI 5월 주택착공, 건축허가 유 5월 자동차 판매	18 <산업/기업> 일 BOJ 의사록 공개 <경제지표> 한 5월 PPI 미 1Q 경상수지 일 5월 무역수지	19 <산업/기업> 버냉키 연준 전의장 연설 <경제지표> 미 FOMC금리결정 5월 경기선행지수 일 4월 선행/동행지수(확정)	20 <산업/기업> 미 선물옵션만기일 <경제지표> 한 5월 출입국자 동향 유 6월 소비자자기대지수 4월 경상수지
23 <산업/기업> BOJ 구로다 총재 연설 <경제지표> 미 5월 기존주택매매 중 6월 HSBC PMI 제조업 유 6월 PMI제조업/PMI비제조업	24 <산업/기업> 한 국제 LED & OLED EXPO 2014 (~27일) <경제지표> 미 4월 FHFA 주택가격지수 4월 S&P/CS 주택가격 지수 5월 신규주택매매	25 <산업/기업> LG전자 스마트워치(G워치) 공개 Google I/O(개발자 지향 콘퍼런스 ~26일) <경제지표> 한 6월 소비자자기대지수 미 5월 내구재주문 1Q GDP(확정)/개인소비	26 <산업/기업> EU정상회담(~27일) <경제지표> 미 5월 개인소비/소득	27 <산업/기업> <경제지표> 한 5월 국제수지/산업생산 미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확정) 유 6월 경기자기대지수/소비자기대지수 일 5월 실업률/CPI/소매판매
30 <산업/기업> 미투데이 SNS 종료 <경제지표> 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경제심리지수 미 5월 미결주택매매 유 6월 CPI 일 5월 광공업생산				
기타일정 1일: 한 5월 무역수지/전국 주택가격 동향 8일: 중 5월 무역수지				

주) *는 대략적인 일자로 정확한 발표예정일이 아님. 각각의 이벤트와 이슈는 예정일이므로, 실제발표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상기 추천종목'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한국전력, 삼성SDI, NAVER, 삼성물산" 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회사 및 LP(유동성공급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투자정보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